다양한 양육자 간의 협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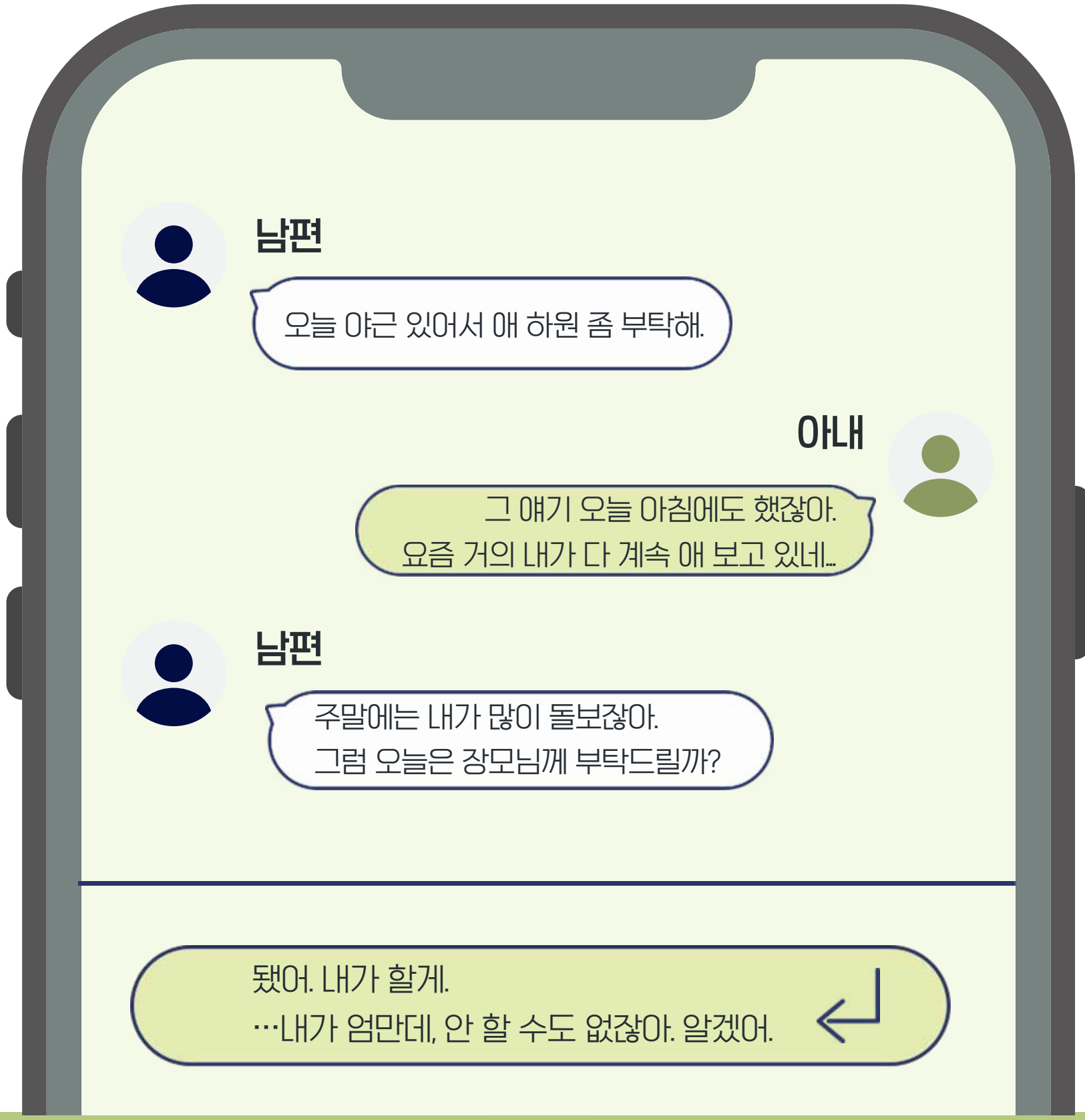
2편

배우자와의 양육,
어떻게 맞춰가면 좋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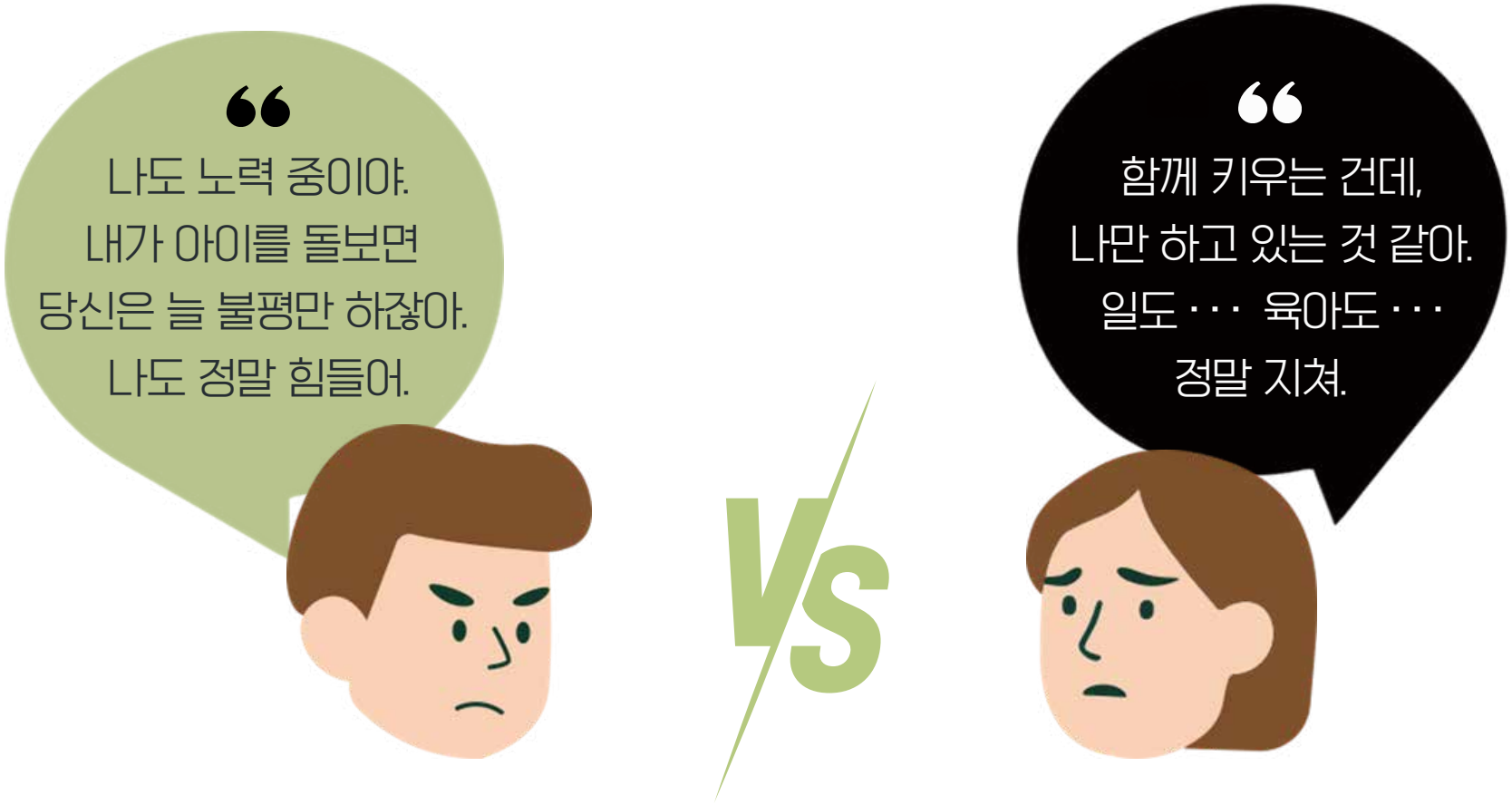


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

혼자서 감당하는 육아, 당연한 걸까요?



지금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.



아이를 늘 혼자 돌본다는 생각에 지치는 양육자가 많습니다.

한 명의 양육자가 아이의 모든 일상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.

'누가 더 잘 키우느냐'보다 '**어떻게 함께 키울까**'가 더 중요합니다.

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'**양육을 공유하는 자세**'입니다.

그렇다면 아이의 양육을

'도와주는 것'을 넘어서,

어떻게 '함께하는 일'로

바꿔갈 수 있을까요?

사례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?

1. 아이의 일상을 함께하기



1. 아이의 일상을 함께하기



육아는
돕는 게 아니라
함께하는 것



작고 꾸준하게
실천하기



보이는 곳에
약속 적어두기

주목!

사실, 부모도 가끔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.
갑작스러운 야근, 회식, 예상치 못한 일정...
함께하기로 한 시간이 어긋날 수 있어요.
하지만 중요한 건,
지키지 못한 약속을 '없던 일'로 넘기지 않는 태도입니다.

"아빠가 오늘 일이 많았어.
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못 지켜서 미안해.
내일은 꼭 같이 하자."

이렇게 **솔직한 설명**과 **다시 이어가려는 마음**은
아이에게 더 큰 신뢰로 남습니다.

2. 양육 방식의 차이 받아들이기



2. 양육 방식의 차이 받아들이기



같은 상황,
같은 말!

먼저 말한 사람의
기준 존중하기

생각이 달라도,
아이 앞에서는
한 목소리로

주목!

양육 기준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,
아이 앞에서는 **부모가 같은 방향을 보여주는 것**이 더 중요해요.
완벽한 일치보다 중요한 것은,
아이에게 **일관된 태도**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.
부모의 일관된 태도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.

BALANCE GAME!

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'현실 양육 선택 게임!'

A

영상은 하루에 30분!
우리 같이 정한 거니까
약속은 지켜야지.



B

오늘은 주말이니까,
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?

양육자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

VS

각자의 방식도 존중되어야 한다

이제 밸런스 게임은 그만!

서로 달라도 괜찮아요.



원칙을 지키는 것도,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
모두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.
하지만 아이에게는 '누가 맞는지'보다 '누구를 따를지'가 더 어렵습니다.
부모의 말이 다르면, 아이의 마음에는 기준 대신 눈치가 남아요.

아이에게 혼란을 줄지, 안정감을 줄지는, 부모의 몫입니다.

서로의 생각은 달라도 괜찮아요.

하지만 아이에게 **일관된 반응**을 보여주면,

그 일관성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.

조부모님과의 양육,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요?
다음 편에서 함께 살펴보아요.







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